

녹지동봉황문 가라오리

‘가라오리(당나라에서 전래된 직조법으로 만들어진 직물)’라고 불리는 이 화려한 비단 기모노는 일본 전통 가면극인 노에서 여성 역할을 맡은 배우가 착용하는 의상입니다. 가라오리는 이러한 노 의상 자체와 그 의상을 만드는 직물을 둘 다를 지칭합니다. 가장 활발히 제작된 시기는 에도 시대(1603~1867)이며, 이 기모노는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라오리는 많은 직물과 마찬가지로 능직 바탕 위에 무늬를 도드라지게 짜 넣은 우키오리 직물입니다. 먼저 날실과 씨실로 기본 무늬를 만든 후, 그 위에 부분적으로 씨실로 짜 넣어 무늬를 넣습니다. 자수처럼 보이지만 무늬를 나중에 꿰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직조과정에서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기모노는 비단 지오리의 직물 바탕색은 짙은 녹색이고, 봉황과 오동나무 문양은 흰색, 열은 청색, 연한 녹색, 진청색, 남색, 노란색, 빨간색 등의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가라오리는 점점 더 화려해져 금사와 은사를 풍부하게 사용한 디자인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노 무대에서 사용되는 가라오리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에 이를 정도로 무겁지만, 조명 아래에서 화려하게 빛나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대조적으로 색채는 선명하지만 차분한 분위기를 띠며, ‘모모야마 문화’(1573~1615)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양이 옷의 상부에서 하부에 걸쳐 반전되며 연속되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부분의 봉황 문양은 위쪽은 왼쪽을 향하고 있고, 그 아래쪽은 오른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는 철저히 양식화된 전통예능으로 배우는 가면과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고 연기를 하는데, 의상 디자인에는 배역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바탕색이 붉은 가라오리 의상은 젊은 여성을 나타냅니다. 이 기모노의 바탕색은 짙은 녹색인데, 붉은색 이외 색상의 의상은 중·장년층 역할을 나타냅니다. 또, 봉황이나 오동나무 같은 고귀한 문양은 보통 권위 있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시카와현은 노 문화가 활발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전신인 가가번은 막대한 재력을 자랑했던 마에다 가문이 1580년경부터 1871년까지 번주로서 이곳을 다스렸는데, 풍부한 자금을 예술과 문화 지원에 투입했습니다. 노가쿠(일본 중요무형문화제 전통예능)에도 깊은 열정을 쏟았는데, 성이 폐지될 때까지 가가번은 일관되게 번의 호쇼류의 노가쿠시(악사)를 육성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가라오리 의상은 현존하는 초기 가라오리의 예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74 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